

아파트 내부에 나타난 한국전통 실내 공간의 특성 및 구성 요소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Korean traditional interior space and major elements
in contemporary apartment

오혜경

경희대학교 아동·주거학과 부교수

이 논문은 1994년도 경희대학교 학술연구비 수혜에 의한 것임

논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아파트 공간에 남아 있는 한국의 전통 실내공간 및 구성 요소를 조사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문헌을 고찰하고 52가구의 아파트를 선정하여 방문에 의한 설문조사와 현장조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의 배치 및 구성은 현관-거실 및 식당-방-안방의 서양적 평면보다 현관-방-거실 및 식당-안방의 한국전통공간에서 기인한 평면이 선호되었다. 둘째, 공간의 특성은 한국전통공간의 여러 특성 중 거실-방, 거실-식당, 식당-부엌 사이의 공간 디자인에서 개방성과 폐쇄성을 찾아볼 수 있었다. 셋째, 난방의 종류는 전체 라지엠타 방식에서 전체 바닥 난방으로 변화되었다. 또한 공간 구성 요소 중에서 바닥은 온돌마루와 장판이, 벽은 벽지가, 천장은 방에는 평천장, 거실에는 가운데가 매립된 천장이 선호되었고, 창문은 특히 안방의 경우 전통적 창살 문양을 선호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investigate the consistency of Korean traditional space in apartment. Fifty-two apartments and its dwellers were selected for field survey research and questionnaire. The major findings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space layout which has its origin in Korean traditional house was found in contemporary apartment and favored than that of western apartment.

Second, among the Korean traditional space characteristics, the openness and closeness were found between the living room and room, living room and dining room, dining room and kitchen.

Third, the heating system has been being changed from radiator to on-dol. Also favored finishing materials were revealed on-dol wood flooring and picture window for the living room, jang-pan flooring and Korean lattice window for the master room, wall covering for every wall and ceiling.

I. 서론

주택은 특정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사이에 생활체험과 문화가 그 지역에 정착해서 계승되고 축적되어 형성된 하나의 고유한 지역문화이다. 우리나라 또한 고대로부터 이러한 독창적 형태의 주거문화를 형성하고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왔으나 근래의 일제 침략 및 6·25전쟁 이후 급격한 서구문화의 유입으로 이러한 전통은 변화되어 새로운 양식의 주택 및 실내공간이 형성되었다.

A.D King(1967)은 이러한 현상을 제1문화(기존 토착문화)에 제2문화(서구문화)가 들어와서 제1도 제2도 아닌 제3의 복합문화가 탄생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즉 서구화에 의해서 이와 유사하게 될 수는 있으나 원래 그 지역의 기후와 풍토 그리고 생활양식에 의해 형성된 고유한 전통 문화를 뛰어넘을 수는 없으며 동일시하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주거양식은 전통문화나 서구문화에서 볼 때 바로 제3의 문화이며 곧 한국만의 독특한 주거문화이다.

물론 이러한 주택이나 실내공간이 무분별한 서구문화의 수용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곧 전통의 단절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그 시대 상황이나 조건에 맞추어 어려운 융화과정을 통해 진보를 한 결과물이므로 긍정적인 시각에서 볼 필요도 있다. 즉 이질적 문화를 받아들이며서도 전통 중의 가치 있는 부분이나 버리지 못하는 생활양식은 고수함으로써 현재 우리가 보편타당하게 살고 있는 우리의 주택이나 실내공간이 탄생되었으며 이것은 현재 우리시대, 우리나라라는 지역에서 우리의 생활양식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 전통사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던 아파트라는 순전히 서구 문화적인 집합주거 형태가 우리나라에 정착하면서 적용이 됨으로써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우리만의 독자성이 있으며 이 독자성이 바른 의미의 전통의 계승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우리시대를 풍미하는 주거문화의 한 부분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장 서구적이며 또한 획일화된 주거형태인 아파트 공간에조차 계승된 우리의 전통성을 조사해 보는 것은 현재의 우리를 둘러보고 앞으로 세계 속에서 독특한 개성을 지닌 우리의 실내공간을 창조하기 위하여 매우 의의 있는 일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내공간 및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문헌을 고찰하는 동시에 현재 아파트 내부에 남아있는 우리의 전통 실내공간 및 구성 요소들에 관한 사례들을 조사 분석하고자 하며 그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아파트 내부에 남아있는 전통 공간의 배치 및 구성은 무엇이며 거주자들이 미래에 선택하고자 하는 공간의 배치 및 구성은 어떠한가?

둘째, 현재 아파트 내부에 남아있는 전통공간의 특성 및 사용방식은 무엇이며 거주자들이 미래에 선택하고자 하는 공간의 특성 및 사용방식은 어떠한가?

셋째, 현재 아파트 내부에 남아있는 전통 실내공간의 구성요소는 무엇이며 거주자들이 미래에 선택하고자 하는 실내공간의 구성요소는 어떠한가를 파악함으로써 앞으로도 지속될 아파트 건설에서 다른 나라와는 다른

한국만의 독특한 실내공간의 창조를 위한 방향설정에 일익을 담당해 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전통 공간의 실내규모 및 배치

1) 실내규모

조선시대는 엄격한 신분사회로 신분에 따라 대지나 주택의 규모가 달라졌다. 이는 특히 제도로 규제가 가해졌는데 예종 때 편찬된 경국대전을 보면 대지의 규모를 제한하는 가대제한(家垵制限)은 대군·공주의 경우 30부(1170평), 군과 응주는 25부(975평), 1,2품은 15부(585평), 7품 이하는 4부(156평)가 되고 서민은 2부(78평)로 한정하였다. 또한 주택의 규모를 규제하는 가사제한(家舍制限)은 대군의 경우 60간(間), 군과 공주는 50간, 2품 이상은 40간, 3품 이하는 30간, 서민은 10간으로 한정하였다(주남철, 1992).

각 방의 규모는 축조방식이 목조 가구식이므로 상인방과 기둥이 받을 수 있는 하중을 고려하고 고래가 길면 효력이 떨어지는 온돌난방 방식으로 인해 7.5尺×8尺(약 1.66평)의 한간 크기가 대부분이었다(홍형욱, 1986). 그러나 안방이나 사랑방 등 주인들이 거처하는 곳은 2간을 연결하는 등 이보다 비교적 규모가 컸음을 <표 1>을 통해 알 수 있다(최상현, 1992).

(표 1) 각 방의 규모(단위: mm)

	사랑채		안채	
	사랑방	사랑대청	안방	안대청
추사고택	3000×5320	3000×2660	2790×4980	3700×7420
궁집	3650×4880	2440×4880	3650×4880	3650×4880
김영구家	2470×4980	2470×4940	3710×4940	2445×4890
박진제家	3900×4940	3820×5940	3710×4940	3710×4940
연경당	3570×4890	3570×4890	2445×4890	2445×4890

2) 공간의 배치 및 구성

조선시대의 주택건축에 있어 그 택지의 선정, 각 공간의 배치 등에 영향을 준 요인은 먼저 음양, 풍수사상으로 주택의 평면은 日, 月, 口 등 좋은 의미의 글자형태를 갖추고 좌향론에 따라 위치와 향을 결정하는데 남향이 제일이고 동향이 다음이라 하였으며 주택의 위치가 정해지면 남철을 마당 한가운데 놓아 대문, 안방, 부엌의 3요소가 사택(四宅)에 오도록 하였다(주남철, 1994).

또한 조선시대는 유교사회로 사회의 기본단위는 개인이 아닌 가족이

있고 그것도 가부장적 대가족제도였다. 따라서 여러 세대가 같은 주택에서 거주하게 된바 세대별, 기능별 분화가 이루어졌고 공간의 위계성이 생기게 되었으며 남녀유별로 인한 성별분화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안채, 사랑채, 행랑채, 별당채, 고방채, 사랑채 등으로 나뉘고 이는 다시 각 기능에 따라 여성의 공간인 안채는 안방, 안대청, 건넌방, 옷방, 부엌 등으로 남성의 공간인 사랑채는 사랑방, 침방, 사랑대청, 누마루로 구성되었으며 외부에는 툇마루가 설치되어 있어 각 공간들을 서로 연결해 주고 있다. 여기에서 안채까지의 진입과정을 보면, 우선 솟을대문을 들어서서 행랑마당을 지나면 다시 중문이 나오고 이를 지나 안마당을 거치면 안채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전통 실내공간의 특성 및 사용방식

1) 특성

㉠ 폐쇄성과 개방성

조선시대는 유교적 내외사상과 가족중심의 배타적 사상으로 외부에 대한 폐쇄성이 형성되었다. 즉 대지의 주위를 담장과 행랑으로 둘러싸 외부로부터 차단시키고 개구부로는 솟을대문과 높은 들창만이 설치된다. 그러나 일단 실내로 들어오면 개방성으로 전환되는바 담장 속의 각 채들은 대부분의 벽체가 창호로 구성되고 이들은 모두 접어서 들뢰어 매달게 되어있다.

이러한 개방성의 문제는 프라이버시의 문제와 직결될 수 있으나 필요시에는 덧문 속의 쌍창, 쌍창 속에 맹장지, 그 다음 부엌자나 방상, 그리고 병풍을 둘러치므로 도합 다섯 겹으로 외부와 차단되게 함으로써 프라이버시가 있는 실내 공간으로 환원된다(주남철, 1992).

㉡ 자연과의 융합과 소박성

우리의 원시종교이자 민간신앙인 샤머니즘적 요소에는 삶이 곧 예술이며 종교이다. 그 삶은 자연에 대결하려는 의지보다는 자연의 리듬 속에 순종해 살려는 민중의 의식이 지배적이다.

한편 한국의 자연은 노년기이므로 완만한 곡선의 산과 작은 구름이 산재한 준평원으로 되어 있으며 기암괴석과 구부러진 나무, 양질의 흙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요소들은 곧 조선시대의 주택 및 실내공간의 성격을 규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흙, 돌, 나무의 자연재료를 사용하였음은 물론 이러한 재료도 되도록 다듬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즉 휘어진 나무는 휘어진 대로 맞추어 쓰며 막생긴 초석 위의 기둥은 밑동을 그레이질하여 그 위에 맞추었다. 그리하여 꾸미는 가운데 꾸미지 않은 듯이 보이게 하는 소박한 성격을 부여하고 있다(주남철, 1994).

㉢ 선적 구성과 면적 구성

조선시대 주택의 외부공간은 선적 구성에 특징이 있다. 즉 기둥, 도리, 인방 등의 구조재 및 서까래, 창호의 살짜임 등이 가지고 있는 선적인 구성성이 그것이다. 그러나 내부공간은 그 반대로 면적인 공간을 이루게 한다.

즉 내부에서는 기둥, 도리, 보 등이 대부분 벽지나 천장으로 가려지고 창호들이 안으로 창호지를 바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면적 구성을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주남철, 1994).

2) 사용방식

㉠ 좌식

거울철 난방방식인 온돌사용의 정착은 좌식생활로 이어졌으며 이에 따라 내부공간의 구성은 좌고(座高)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즉 방을 이용할 때는 방바닥에 방석을 깔고 앉는 것이 기본이므로 출입할 때를 제외하고 인체의 물리적 동작은 방바닥에 밀착하여 전체적인 위치가 낮아진다(김영희, 1989).

㉡ 탈화

밖에서는 신발을 신고 실내에서는 신발을 벗는 상하족분리(上下足分離) 문화는 세계적인 시각에서 볼 때 희소하고 진귀한 문화이며 발전된 문화이다(이규태, 1994). 이는 우리의 오랜 전통이었으며 모든 실내공간은 이를 전제로 하여 구성되었다.

우선 좌식의 생활양식은 탈화가 이루어졌을 때보다 기능적이며 위생적이다. 따라서 온돌과 좌식, 탈화는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는 우리 민족의 독특한 문화이다.

㉢ 다기능

우리의 전통 생활양식인 좌식은 다세대 대가족의 가족제도와 더불어 방의 전용성을 가능하도록 하였다(홍형욱, 1986). 따라서 하나의 방이 침실, 거실, 집객실, 가사실에 간이화장실까지 여러 기능을 겸할 수 있었다. 또한 대청은 방과 방의 통과 공간임과 동시에 의례공간, 가사노동공간으로 쓰였고 혼례, 상례시나 집회시, 의식 등 넓은 공간이 요구될 때에는 다양한 창호개폐방식에 의해 확장이 가능하였다. 이는 마당에도 이어져 겨울을 제외한 계절에는 마당이 부엌이나 작업실의 연장선상에 있음으로써 외부공간조차 내부화하여 전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공간구성 요소

1) 바닥

조선시대 주택의 실내 바닥은 크게 온돌, 마루, 흙바닥으로 나뉜다. 우리나라 고유의 난방방식인 온돌은 방바닥 밑으로 몇 줄의 갱도(坑道)를 놓고 그 위에 구들장을 틈없이 깔 후 두겹게 흙을 발라 면을 고른다. 마감은 이 흙 위에 저급 창호지로 초배를 하고 마지막으로 일정한 크기의 두꺼운 장판을 바른다. 마감 후에는 장판지가 겹쳐 들어가는 부분이 약간 도드라지고 이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정방형의 띠를 형성하게 된다.

마루는 우물마루, 장마루, 쪽마루로 구분되나 쪽마루는 주택에서 쓰인 예가 없다(한성희, 1977). 우물마루는 장귀들과 동귀들 사이에 마루널을 끼워 넣는 형식으로 가장 널리 쓰이던 형태이다. 장마루는 좁고 긴 널판을 나란히 붙여 깔 것으로 오늘날에는 우물마루보다 널리 쓰인다(홍진경,

1938). 흙바닥은 광, 부엌 등에 쓰였다.

2) 벽

조선시대 주택의 벽은 심벽구조로 기둥과 기둥 사이에 인방을 보내고 여기에 중깃과 가시새를 수직과 수평으로 설치한 후 흙을 바르고 석회로 마감함으로써 입면상으로 볼 때 아무런 장식도 없는 매끈한 벽체가 된다(주남철, 1994). 내벽은 장판지 마감이 된 방에서는 벽지로 마감하고 대청의 경우에는 회벽을 그대로 두기도 한다.

3) 천장

조선시대 주택의 천장은 그 구성에 따라 샷갓천장, 연등천장, 빗천장, 반자천장으로 나뉘며(신영훈, 1993), 이 중 연등천장과 반자천장이 많이 쓰였다. 연등천장은 서까래가 실내에 노출되고 서까래 사이는 앙토했던 후 흰 회로 마무리하며 이것을 지붕구조 아래에 매다는 방식으로 종이반자, 평반자, 고미반자, 우물반자로 분류된다. 이 중 온돌방에 많이 쓰인 것은 종이반자로 반자들에 종이를 발라 마감하며 지금도 흔히 볼 수 있는 천장이다.

평반자는 장마루를 짜듯이 널빤지나 반으로 쪼갠 나무를 잇대어 설치하는 방식이며 고미반자는 각재(고미허)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한 후 그 사이의 공간을 가로지르는 널빤지나 나무에 산자를 엮고 흙을 바른 방식이다. 또한 우물반자는 반자 중 제일 고급으로 바둑판같이 반자들을 짜고 그 사이의 우물에 네모 반듯한 청판을 끼워 마감하였다(신영훈, 1993).

4) 문과 창문

조선시대 주택의 문과 창문은 서양의 문과 창문이 도어(door)와 윈도우(window)로 뚜렷이 구분되는 것과는 달리 그 한계가 모호하다. 즉 창문이 출입문의 구실을 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다(주남철, 1992).

- 문으로만 사용하는 것: 판장문, 골판문, 맹장지, 도듬문, 불발기
- 창으로만 사용되는 것: 살창, 교창
- 문과 창으로 혼용되는 것: 대살창(문), 용자창(문), 아자창(문), 완자창(문), 정자살, 숯대살, 빗살창, 소슬빗살창, 귀자창, 귀갑창, 꽃살창

4. 전통 실내공간의 변화와 계승

조선시대의 전통공간은 조선후기의 개화사상, 일제의 침략 및 6·25에 따른 외래문화의 유입과 그 이후 내부의 격변기 및 고도의 경제성 성장기를 거치면서 급격히 변화해 나갔다. 즉, 신분제도 및 가부장제의 붕괴, 사회경제적 계층형성의 새로운 배경, 산업화에 따른 인구의 도시집중 등은 전통적 생활양식에서 근대화된 생활양식으로의 변화를 요구하였고 이를 수용하기 위한 주거 및 실내공간의 형태도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우선 그 규모를 보면, 신분 및 가족제도에 따라 계층화되어 있던 것이 신분제도는 소멸되고 대가족은 핵가족으로 소규모화되면서 가족주거나

가족의 수 및 경제력, 그리고 경제 가치로서의 주거인식에 따라 그 규모를 결정하게 되었다. 공간의 배치 및 구성을 보면 우선 식사실 및 욕실의 등장, 화장실의 내부화, 부엌의 입식화 등 전통주택에는 없던 공간들이 정착되었고, 사랑방은 안방으로 행랑채는 가정부실로, 다시 가정부실이 없어지고 다용도실이 등장하는 등 가족구조와 생활의 변화에 따라 공간의 구성이 달라짐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안방은 현관이나 대문으로부터 제일 먼 곳에 위치시킨다는 점이나 가족의 단란을 위한 장소로 활용된다는 점, 마루가 거실로 바뀌게 되나 위치나 구성방식이 서구와는 다르게 전통주택의 마당과 마루가 복합된 성격이라는 점 등 지속되고 있는 요소도 많다(임창복, 1980). 특히 생활양식의 가장 기본이 되는 바닥난방으로 인한 좌식생활과 실내에 들어올 때는 신을 벗는 행위 등은 현대의 공간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우리의 공간을 '한국적'으로 느끼게 하는 상징을 부여한다(윤복자·이지연, 1994).

또한 현대에 와서도 지속되고 있는 전통공간은 온돌과 마루이며 온돌은 난방방식 중 사람에게 가장 쾌적한 느낌을 주는 바닥난방 방식이라는 점과 공간사용의 융통성 및 우리 민족의 체질화된 인자라는 점에서 쉽 리 대치되지 못할 것이다(홍진경, 1986).

마루는 고온다습한 한반도의 여름을 지내는 데 매우 과학적인 구조로 특히 마루판 틈틈이 올라오는 바람과 천장구조가 연등천장일 경우 삼각부분은 환류(還流)현상을 야기시켜 평천장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시원한 거처를 제공해준다(신영훈, 1983).

III.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전통 실내 공간 및 구성요소들에 관해 문헌조사에서 밝혀진 내용을 바탕으로 면접에 의한 설문조사를 하고 동시에 관찰, 스케치, 실측 등을 통해 현장 실태조사를 병행하였다.

1. 조사 대상자 및 아파트의 선정

본 연구는 우선 그 대상을 선정하기에 앞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한국 전통 공간에 대한 관심도 및 앞으로 선택할 실내공간에 대한 설문과 방문시 조사하여야 할 내부공간의 목록을 작성한 뒤 1994년 11월 15일-24일에 걸쳐 주부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의 선정은 연령, 학력, 지역 및 아파트 규모에 따라 한국 전통 공간에 대한 관심이 다를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이 조건에 부합되도록 의도 표집하여 총 18가구를 방문, 면접하였다. 그 결과, 연령은 38세 이상에서 아파트의 면적은 전용면적 30평 이상에서 관심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 및 지역은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조사는 이에 부합되는 아파트로 한정하였고 아파트의 평면 구성, 난방방식, 마감재 등은 건축연도에 따라 변해왔다는 통념을 고려하여 서울시에 대단위 단지 및 전용면적 30평 이상의 아파트가 건설되기 시작한 1970년대부터 1994년 현재까지 분양된 아파트를 고루 표집하였다.

그 시기는 예비조사에서 파악된 문제점을 수정, 보완한 뒤인 1994년 12월 3일-1월 6일까지였으며 조사된 가구는 총 52가구였고 그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970-1973: 이촌동 한강맨션, 반포동 반포
- 1974-1977: 당산동 강남맨션, 이촌동 렉스, 이촌동 현대, 여의도 대교, 여의도 한양, 여의도 공작, 압구정동 구현대2차, 여의도 한성
- 1978-198: 신반포 한신2차, 신반포 한신3차, 여의도 광장, 압구정동 한양3차, 서초동 진흥, 서초동 우성, 잠실 잠미, 신반포 한신 8차
- 1982-1985: 방배동 신동아, 방 배동 삼호가는, 옥수동 한남 하이즈, 압구정동 신현대10차, 대치동 미도, 방배동 신삼호, 대치동 쌍용, 방배동 인광, 개포동 우성, 동부이촌동 신동아, 가락동 삼환, 개포동 선경, 광장동 극동아파트
- 1986-1989: 응봉동 대림, 잠실 아시아 선수촌, 목동 13단지, 목동3단지, 반포동 한신서래, 압구정동 미성, 가락동 올림픽 웨밀라, 응암동 우성, 서초동 삼풍, 오금동 올림픽 선수촌, 중계동 상아, 상계동 인광
- 1990-1994: 분당 5차 동아, 평촌 3차 우방, 산본 2차 대림, 중계동 정구, 중계동 라이프, 일산 1차 우방, 분당 9차 삼성, 일산 3차 건영, 중동 4차 건영

2. 조사방법 및 내용

1) 공간의 특성

본 연구의 방법은 아파트 백과-서울시 및 5개 신도시(새진기회, 1994)-에 나타난 분양면적 7평- 92평까지의 아파트 평면 3,380여 개 중에서 전용면적 30평 이상, 45평 이하의 아파트를 골라내어 연도별로 리스트를 만들고(45평 이상은 특수층이라 사료되어 제외하였음) 방문 가능한 아파트 중 주부연령을 38세 이상으로 한정하여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심층면접에 의한 설문조사와 관찰, 스케치, 실측 등에 의한 실태조사를 하였다.

실태조사의 내용은 현 우리의 아파트에서 전통적 요소를 찾아보기 위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즉 아파트 내부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각 실의 위치 및 규모, 공간의 개방성 및 폐쇄성, 공간의 사용방식, 난방의 종류, 공간의 구성요소인 바닥·벽·천장·문과 창문 그리고 분지방 유무 등에 대한 분양 당시의 상태를 조사하였다. 한편 설문 내용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공간의 각 요소 및 디자인에 대한 선호도 및 미래에 선택할 방향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현 공간의 각 요소별 디자인에 대한 선호도는 현장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분양 당시의 상태를 선호하는가의 여부를 물었고, 미래에 원하는 방향은 앞으로 다시 아파트를 선택할 기회가 있게 된다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아파트 각 공간의 구성요소 및 분위기를 알아보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설문조사의 경우 빈도, 백분율, 평균 등 단순 통계치 리하였고 현장실태조사의 경우 단순 통계치리와 조사된 각 공간구성요소를 연도별로 리스트화하여 그 경향을 파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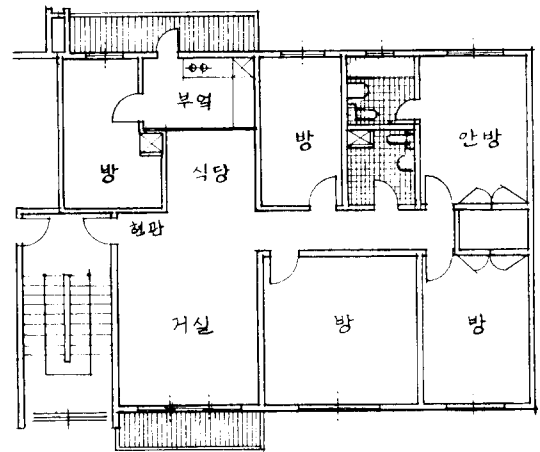
IV. 조사결과 및 논의

1. 공간의 배치 및 구성

조사대상 아파트에서 수집된 자료 및 평면을 분석한 결과 공간의 배치 및 구성은 크게 2종류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그림 1, 그림 2).

그림 1은 공동공간인 거실, 식당 등이 현관과 인접하여 있고, 개인공간인 침실과 욕실이 그 안쪽에 위치해 있는 유형으로 70-74년에 건설된 아파트에 많다. 이는 본격적인 중산층용 대단지 아파트로 최초의 중앙공급식 온수 보일러가 설치된 이촌동의 한강아파트가 모델이 되어 지어진 초기의 유형이었다.

(그림 1)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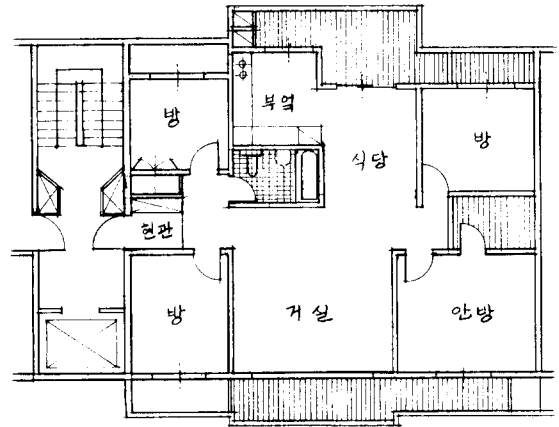


그림 2는 7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어진 전용면적 30평 이상의 거의 모든 아파트에서 볼 수 있는 유형으로 현관을 들어서면 양쪽에 방이 위치하고 그 안쪽에 거실과 식당이, 그리고 다시 그 안쪽으로 안방을 위치한 두 개의 방이 위치한 유형이다. 이러한 공간의 구성방법은 조사대상자 중 92.3%의 주부가 선호하고 있었으며 그 이유로는 현관을 들어서면서 바로 거실이나 식당이 보이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완충공간을 거치는 것이 안정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안채로 들어가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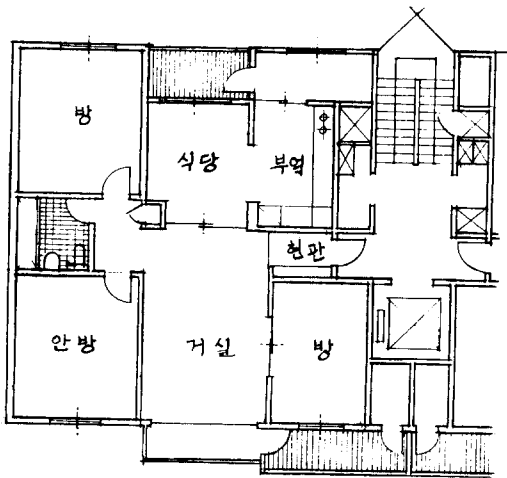
여러 개의 문과 공간을 거쳐야 하는 한국 전통 공간의 구성방법과 무관하지 않으리라 사료된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또 다른 결과는 65.4%의 주부가 현관문 외에 중문의 설치도 원한다는 것이다. 이는 특히 거실의 위치가 현관과 바로 인접해 있는 경우 그 요구도가 높았다. 한편 안방은 대부분 그 면적이 다른 침실에 비해 크고 현관에서 가장 먼 곳에 그리고 가장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는 가부장 중심제에서 유래된 안방 중심의 전통적인 주거 생활이 아파트라는 서구식 주거패턴에서도 안방의 상징적 의미와 중요성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보여진다.

2. 공간의 특성 및 사용방식

1) 공간의 특성

조사대상 아파트에서 수집된 자료 및 평면을 분석한 결과, 이론적 배경에서 밝힌 전통 실내공간의 특성 중 자연과의 융합과 소박성, 선적 구성과 면적 구성은 부각되지 않았고, 폐쇄성과 개방성은 거실과 방 사이, 거실과 식당 사이, 식당과 부엌 사이에서 그리고 창문 유리의 투명/반투명 유형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이 중 전통주택의 개방적 공간인 대청과 방 사이의 상호개념은 유일하게 송파구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의 거실과 작은방 사이에 있는 두짝 미서기 문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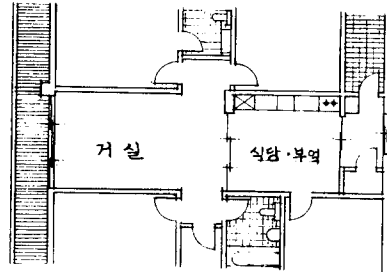
(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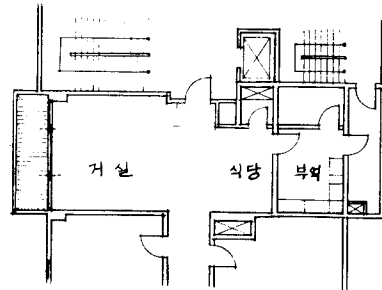
물론 이것은 우리의 전통 주택에서 느껴지는 바로 그 멋은 아니나 그 개념을 현대화하여 적용시킨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태조사 과정에서 연구자가 조사한 분양면적 47평(방 4개)에 거주하는 주부들은 4인 가족일 경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그 이하, 즉 분양면적 34평(방 3개)에 거주하는 주부들은 거실의 한쪽 벽이 문으로 되어 있어 거실에서 가구배치의 어려움과 방 또한 거실에 직접 면해 있어 실제 개인공간으로 쓰기에는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있으므로 매우 부정적이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공간을 계획할 때에는 가족수나 거주자의 생활양식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아파트의 내부공간은 크게 침실, 욕실 등의 개인공간과 거실·식당 등의 공동공간, 부엌이나 다용도실 등의 작업공간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중 거실·식당·부엌·다용도실은 가족 모두가 공유하는 공간으로 프라이버시가 크게 요구되는 공간은 아니다. 따라서 전통주택의 공간적 특성인 폐쇄성과 개방성의 장점을 적용시킬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이곳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유형화하면 (그림 4, 5, 6, 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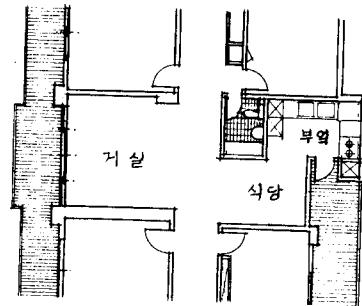
(그림 4)



(그림 5)



(그림 6)



(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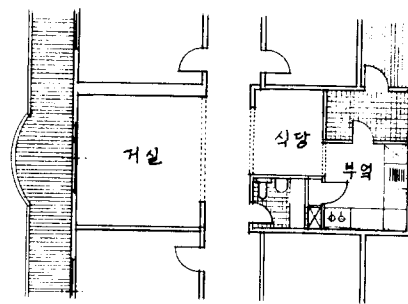


그림 4는 거실과 식당이 일렬로 부엌은 식당의 한 벽면에 위치한 유형으로 거실과 식당 사이를 그대로 개방시키거나 유리문 혹은 장식장이 있어 바로 들여다보이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 예는 13개의 아파트에서 찾아볼 수 있었으며 이 중 2가구만이 만족한다고 하였다. 만족하지 않는 이유를 보면, 거실과 식당이 개방되어 있는 경우, 부엌이 바로 들여다보이며 유리문이나 장식장으로 막혀있는 경우, 공간이 좁아 보여 답답하다는 것이었다. 실제 이 유리문이나 장식장을 제거해 버린 가구도 많이 있는 것을 조사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나 제거해 버린 후 손님이 올 경우 역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었다.

그림 5는 거실, 식당, 부엌이 일렬로 나란히 위치하는 유형으로 거실과 식당은 개방되어 있고, 식당과 부엌은 개방되거나 벽으로 차단 혹은 주름문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 예는 11개의 아파트에서 찾아볼 수 있었으며 이 중 1가구만이 만족한다고 하였고, 대부분 독립된 부엌이 인기를 희망하였다. 만족하지 않는 이유를 보면, 식당과 부엌이 차단되어 있는 경우, 식당이 너무 어둡고, 개방되어 있는 경우, 부엌이 너무 들여다보이며, 주름문이 있는 경우 미적으로 좋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림 6은 거실과 식당은 일렬로 부엌은 식당에서 90° 꺾여서 위치한 유형으로 식당과 부엌 사이는 벽으로 차단되어 문이 달려 있거나 90~210cm 정도 그대로 개방되어 있다. 그 예는 18개의 아파트에서 찾아볼 수 있었으며 이 중 11가구가 만족한다고 하였다. 만족하지 않는 이유를 보면, 부엌이 거실이나 식당과 유리되어 주부에게 고립감을 준다는 것이었고, 만족하는 이유는 부엌이 독립되어 있고 들여다보이지 않아 좋다고 하였다. 이 중 식당과 부엌이 많이 개방되어 있을수록 만족률이 더 높았는데 여전히 손님이 왔을 경우 부엌이 들여다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림 7은 부엌이 식당과 약간 비껴서 위치한 그림 5와 그림 6의 중간 유형으로 식당과 부엌 사이는 약 90~180cm 정도 그대로 개방되어 있다. 그 예는 10개의 아파트에서 찾아볼 수 있었으며 이 중 6가구가 만족한다고 하였다.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그림 6의 경우와 유사하였다.

이를 종합해 보면, 조사 대상자들이 선호하는 거실-식당-부엌의 공동 공간은 개방성과 폐쇄성이 적절히 조화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즉, 거실과 식당은 일렬로 개방되어 있고 부엌은 식당에서 90° 꺾여서 위치하며 식당과 부엌 사이를 180cm 이상 개방하며 이곳에 문을 설치하되 평상시에 열어도 완전히 열려 시야를 차단하지 않는 문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사료된다. 시야를 차단하지 않는 문이란 포켓문(Pocket door)이나 접어서 벽에 완전히 부착시킬 수 있는 접이문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창문 유리의 투명/반투명 선호 여부는 한국 전통 공간의 한지 바른 문과 연관이 있고, 이는 폐쇄성과 개방성의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되어 거실과 방의 창문 유리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현재 거실문이 투명유리만으로 되어 있는 곳은 25가구이며(48.0%), 그 외에는 투명과 반투명 유리의 2중문으로 되어 있으며 연도별로 변화된 추세를 보면 88년까지는 뚜렷한 경향이 없이 혼용되다가 그 이후에 건설된 아파트에서는 거의 투명유리만 쓰이고 있다.

또한 방은 투명유리만으로 된 곳이 단 3가구였고, 그 외의 49가구(94.2%)는 투명과 반투명의 2중문으로 되어 있었다. 이를 다시 연도별로 보면, 투명유리가 설치된 곳은 70년도 초기에 건설된 아파트로서 거실과는 상반되는 현상이었다. 창문 유리에 대한 앞으로 거주자들의 요구는 이러한 경향과 발을 맞추어 대부분 거실에는 투명유리뿐만, 방에는 투명과 반투명의 2중문을 요구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거실은 공동공간이므로 개방되어도 무방하지만 방은 투명유리일 경우,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 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실제로 프라이버시의 문제를 커튼 등으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투명 유리를 요구하는 것은 역시 전통 공간에서 한지 바른 문의 장점을 느끼고 있는 이유라 사료된다.

2) 공간의 사용방식

공간의 사용방식을 보면 주택에서 지금도 꾸준히 지켜지는 것은 신을 벗고 생활한다는 것이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되어 나갈 것이다. 그러나 공간을 다목적으로 사용한다거나 좌식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서양의 공간구조나 생활방식과 섞여 거실이나 자녀 방보다는 안방에 많이 남아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거실에서 좌식을 고수하는 가구는 조사된 52가구 중 1가구일 정도로 98.1%가 입식이고 안방은 51.9%가 좌식이었다. 이는 앞으로 선택할 유형에서도 그 비율이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방이 좌식인 경우, 대부분 다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침실의 기능과 손님접대, 집안행사가 주였으며 입식인 경우 침실의 기능만을 가지고 있어 대표적이었다. 한편 앞으로 선택할 공간의 유형을 알아보았더니 대부분 현재의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의견이었으며 그 중 좌식인 경우 이부자리를 펴고 개는 일이 싫어서 입식으로 바꾸겠다는 거주자가 4명, 또 입식인 경우 한국적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여 좌식으로 바꾸겠다는 거주자가 4명으로 같은 비율이었다. 또한 현재 입식으로 생활하고 있는 가구 중에서 자녀들이 떠난 후, 방의 여유가 있거나 좀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간다면 전통적으로 꾸민 방을 하나 두겠다는 의견이 76.9%로 전통공간에 대한 관심이나 요구가 비교적 높음을 알 수 있었다.

3. 난방종류 및 공간구성요소

1) 난방의 종류

조사대상 아파트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난방방식은 대부분 중앙공급식이었으며 87년 양천구에 건설된 목동아파트부터 시작하여 개인이 조절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점차 바뀌어 나가고 있다. 그 종류를 보면 ① 전체 라지에타 설치 ② 방 4-5개 중 2개 정도는 바닥난방, 그 외의 공간은 라지에타 설치 ③ 방은 전체 바닥난방, 그 외의 공간은 라지에타 설치, ④ 방·식당·부엌은 바닥난방, 거실·욕실은 라지에타 설치 ⑤ 전체 바닥난방(욕실은 라지에타)으로 나눌 수 있다. 이를 연도별로 추적해 보면 우선 초기의 용산구 이촌동 한강아파트와 서초구 구반포 아파트에서 ①번이, 그 후 74-76년에 분양된 영등포구 당산동 강남 아파트와 용산구 이촌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및 강남구 압구정동의 빛넋 아파트에서 ②번의 경

향이 나타났다.

다음 ③번은 75-82년까지의 경향이었고 83년 이후는 대부분 ⑤번으로 바뀌어 나갔다. 그러나 82년 이후에 ③번과 ⑤번을 절충한 ④번의 방법으로 설치된 아파트(강남구 대치동 선경아파트, 용산구 이촌동 신동아아파트)가 보이는데 이는 전체 바닥난방일 경우 실내가 너무 덥거나 혹은 건조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거실만 라지에타로 한 절충식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주부들의 선호는 전체 바닥난방 설치가 우세하였고(84.6%) 거실만 라지에타로 하는 것을 원하는 비율도 15.4%였다. 이러한 경향을 종합해 보면 결국 한국의 독특한 난방방식인 바닥난방은 몇 단계의 과정을 거쳐 서구적 주거방식인 아파트에조차 탄탄히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 전망해 볼 수 있다.

2)공간구성요소

다음 공간구성요소인 바닥, 벽, 천장, 창호에 관한 사항 중 우선 바닥은 난방의 종류와 맞물려 있었다. 즉 전체가 라지에타인 경우 아스타일이나 리놀리움으로, 거실이 라지에타이고 방이 바닥난방인 경우 거실은 마루로, 방은 장판으로 마감된 아파트가 대부분이었다. 또 전체가 바닥난방인 경우 거실은 리놀리움으로 방은 장판으로 마감됨으로써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그러나 미래에 선택하기 원하는 거실의 바닥재료로 양질의 리놀리움이 유지하기 쉬워서 좋다는 의견과 대리석이나 타일을 선택하겠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마루가 82.7%로 매우 우세하였다. 즉 현재 거실의 난방이 라지에타식에, 마감재료가 마루로 되어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바닥난방인 경우에도 마루(온돌 마루)를 선택하겠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자연재에 대한 선호(42.3%)와 더불어 한국의 대청마루가 지니고 있는 전통적 정서와 향수(36.5%)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한국인의 정서에 맞는 거실의 바닥재료는 마루이며 따라서 온돌마루가 현재보다 가격 면에서 저렴하게 생산이 된다면 이에 대한 수요는 급증할 것이라 전망해 볼 수 있다.

방은 안방의 경우 장판을 계속 선택하겠다는 비율이 86.5%였고 아동방의 경우 장판 36.5%, 리놀리움 30.7%, 마루 28.8%로 아동의 활동이나 유지관리를 고려한 선택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안방의 경우는 현재 침대를 사용하고 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장판 마감을 선호함으로써 안방에 대한 상징적 관념이 지배적이라 할 수 있다.

벽은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가 벽지마감으로 되어 있어 가장 확실적이었는데 앞으로 선호하는 마감재의 종류 또한 벽지라는 의견이 88.5%를 차지함으로써 벽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다. 이는 한국 전통 실내공간의 바닥 마감재가 대청인 경우 회벽으로 마무리되지만 장판지인 경우 반드시 벽지, 즉 한지로 마감되며 이는 천장까지 포함하게 됨으로써 한지가 지닌 부드러운 파스함이 공간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으리라 사료된다. 즉 연구자가 다양한 벽재료를 사진으로 보여주며 설명한 후 벽 마감재를 선택하도록 유도하였음에도 유독 벽지를 선호하였고 그 이유는 주거공간이므로 부드럽고 따뜻한 분위기를 내려면 벽지가 가장 적합하다(82.7%)는 의견이었다.

천장은 방의 경우 거의 대부분 평천장이었고 거실의 경우 평천장이

32.5%, 나머지는 1m×1m, 혹은 2m×2m 등 다양한 규격으로 가운데가 매입되어 있었으며 그 중에는 8각으로 매입되어 있거나 천장의 끝이 올라가는 함각형식(성동구 한남 하이츠아파트, 압구정동 한양아파트)도 있었다. 이 또한 연구자가 한국 전통공간의 천장형식을 포함한 다양한 천장의 종류를 사진으로 보여주고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방의 경우는 역시 평천장으로, 거실의 경우 연등천장이거나 우물천장을 선택한 사람도 있었으나(17.3%) 현재의 천장 형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다음, 문과 창문에 있어서 문은 방문의 경우 플러시(flush)문으로 아무 몰당이 없는 스타일과 약간의 몰당이 있는 스타일로 나누어지며 거실과 식당 사이나 현관과 거실 사이의 문은 대부분 프랑식 문(french door)이 설치되어 있었고 거실과 식당 사이는 미서기로, 현관과 거실 사이는 여단어로 되어 있었다.

또한 창문은 조사대상 아파트 중 영등포구 여의도 한양아파트와 서초구 신반포 한신 2차아파트, 일산의 우방아파트에는 안방에, 송파구의 잠실 아시아 선수촌아파트에는 거실에 한국 전통 창살문양이 적용되어 있었고 그 외에는 모두 창틀에 유리만 끼워되어 매우 획일화되어 있었다. 이에 대한 거주자들의 의견은 특히 창문의 경우 안방에 전통적 창살이 있는 것을 원하였고, 그 비율은 48.0%에 달하였으며 이는 현재 안방의 주거형식이 좌식일 경우 그 비율이 높았다(84.6%). 공간의 구성요소는 일반적으로 바닥, 벽, 천장, 문과 창문을 일컫으나 실태조사 중 방문의 문지방이 없는 아파트가 있어 이를 조사하여 보았다. 그 결과 서초구의 구반포 아파트와 용산구의 한강 아파트에서만 그 예가 발견되었을 뿐 대부분은 문지방이 있었다. 이들 두 아파트는 초기에 건설된 중산층용 아파트의 전형으로서 그 구조가 한국적 생활양식을 고려하지 않고 서양의 주거 패턴을 거의 그대로 옮겨온 데서 나타난 특성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문지방이 없는 것을 원하는 거주자가 19.2%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청소기를 사용할 때 문지방에 걸린다는 이유가 대부분이었다. 원래 한국 전통 공간에는 문지방이 필수적으로 있었고 위에 열거한 두 아파트의 경우 초기의 정착과정에서 일어난 과도기적인 특성이므로 곧 문지방이 생겨났으나 아직 소수이지만 근래에 들어 이러한 요구가 있다는 것은 아파트의 계획시 참고해 보아야 할 부분이다.

IV. 결론

본 연구는 아파트 공간에 남아있는 한국의 전통 실내공간 및 구성요소를 조사하고자 계획되었으며 이를 위해 관련문헌을 고찰하고 방문 및 면접에 의한 설문조사와 관찰, 스케치, 실측 등을 통한 현장 실태 조사를 병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의 배치 및 구성에 있어서는 초기의 현관-거실·식당-방-안방의 구성보다 74년 이후의 현관-방-거실·식당-안방으로 구성된 공간배치의 선호도가 92.3%로 월등 높았다. 또한 65.4%의 주부가 현관문 외에 중문의 설치를 원했는데 이러한 결과는 안채로 들어가려면 여러 문과 공간을 거쳐야 하는 한국 전통공간의 구성방법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며 이

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둘째, 공간의 특성 및 사용방식에 있어서는 폐쇄성과 개방성이 부각되었는데 이는 전통주택의 개방공간인 대청-방 사이의 현대적 적용이라 여겨지는 거실-방, 거실-식당 부역에서 찾을 수 있었으며 창문 유리의 투명/반투명 유형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먼저 거실-방 사이의 개방성은 유일하게 송파구 올림픽 선수촌아파트에서 발견하였으나 개인방으로 쓰기에는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있어 이 방을 여분의 방(서재나 거실의 연장 공간 등)으로 돌 수 없는 가구에서는 매우 부정적인 반응이었다.

다음, 거실-식당 부역의 배치는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으며 거주자들이 선호하는 공간은 개방성과 폐쇄성이 적절히 조화된 공간이었다. 즉, 거실과 식당은 일렬로 개방되어 있고, 부역은 식당에서 90° 꺾여 위치하며 식당과 부역 사이를 180cm 이상 개방하여 이곳에 문을 설치하되 평상시에 열어두면 완전히 열려 시야를 차단하지 않는 문을 설치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창문 유리의 투명/반투명 선호 여부는 대부분 거실은 투명 유리로 하고, 방에는 투명과 반투명의 2중문을 요구하였는데 특히 방의 경우 반투명 유리를 고집하는 것은 전통공간에서 한지 바른 문의 적절한 개방성과 폐쇄성의 장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공간의 사용방식은 거실의 경우 52가구 중 1가구만이 좌식이었고 안방의 경우 21가구가 좌식이었다. 안방이 좌식인 경우 침실의 기능과 손님 접대, 집안 행사 등 다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현재 입식으로 생활하고 있는 가구 중에서도 여분의 방이 있다면 전통적 좌식으로 꾸민 방을 하나 두겠다는 의견이 76.9%로 전통공간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난방종류 및 공간 구성요소에 있어서, 난방종류는 초기의 전체 라지에타→방 2개 정도는 바닥난방, 그 외는 라지에타→방은 전체 바닥난방, 그 외는 라지에타→전체 바닥난방(욕실만 라지에타)으로 변화되었으며 이에 대한 선호는 전체 바닥난방이 우세하였다(84.6%).

결국 한국의 독특한 난방방식인 바닥난방은 몇 단계의 과정을 거쳐 시급적 주거방식인 아파트에조차 탄탄히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 전망해 볼 수 있다. 공간 구성요소 중 바닥은 현재 그 재료가 다양하게 쓰이고 있으나 미래에 선택하기 원하는 바닥재료로 거실은 온돌마루가 82.7%였고, 안방은 장판이 86.5%였으며, 자녀방은 장판, 리놀리움, 마루가 고루 섞여 있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마루와 장판은 현대에도 한국인의 정서에 맞는 재료라 할 수 있으며 특히 온돌마루가 현재보다 저렴하게 생산된다면 이에 대한 수요는 급등할 것이라 전망해 볼 수 있겠다.

벽은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벽지로 마감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선택할 재료 또한 벽지라는 의견이 88.5%였고, 그 이유는 주거공간이므로 부드럽고 따뜻한 분위기를 내려면 벽지가 가장 적당하다(82.7%)는 의견이었다.

천장은 방의 경우 대부분 평천장이고 거실의 경우 다양한 규격으로 가운데가 매립되어 있었으며 합각형식도 있었다. 앞으로 선택할 천장 또한 현재의 상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창문은 실태조사 결과 4곳에서 한국 전통 창살 문양이 적용되어 있었고, 그 외에는 모두 창틀에 유리만 끼워 있어 획일화되어 있었다. 앞으로 선택할 창문은 특히 안방에 전통적 창살 문양이 있는 것을 원하였으며(48%), 현재 안방의 주거 형식이 좌식일 경우 그 비율이 높았다(84.6%).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아무리 서구화된 아파트라 해도 우리의 생활문화가 계승된 전통성이 아직은 상당부분 남아있고 또한 이러한 전통성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 전망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는 다방면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200

참고문헌

- 강영환(1991), 한국주거문화의 역사, 기문당.
- 김미희(1991), 대도시 아파트 거주자의 주생활 양식,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영희(1989), 전통 주거 공간의 시지각 현상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선희(1991), 조선시대 반가의 주생활과 공간사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신영훈(1993), 한국의 살림집, 열화당.
- 윤복자·이지연(1994), 아파트 거주자의 주거의식에 내재된 전통성의 계승과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0권, 8호.
- 이규태(1994), 한국인의 생활구조 - 한국인의 집 이야기, 기린원.
- 임창복(1988), 한국 도시 단독주택의 유형적 지속성과 변용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주남철(1990), 이조말부터 1945년도까지의 한국의 주택 변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4권, 38호.
- 주남철(1992), 한국주택건축, 일지사.
- 주남철(1994), 한국건축의장, 일지사.
- 최상현(1992), 조선 상류주택 내부공간과 인체 치수와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한경희(1977), 구한말 궁궐 건축 내부의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홍진경(1986), 한국 전통 주택의 실내 마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홍형욱(1986), 한국인의 주거조정 및 적용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King, A.D.,(1976), Cultural pluralism and urban form, In A. Rapoport(Eds.), The mutual interaction of people and their built environment, Mouton.
- Rapoport, Anos(1969), House Form and Culture, Prince-Hall.